

지역 서민금융 자금 33% 서울로 빠져나간다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서울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등과 함께 영업구역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최근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2004년 이후 심화... 지역 중기 자금난 악화시켜

따르면 지난해 지역예금의 40% 가량을 차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금의 33.3%가 서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2004년 이후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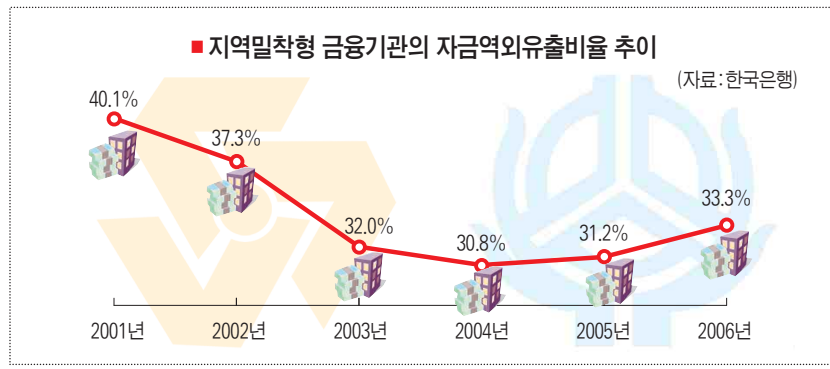
이들 금융기관 자금의 서울지역 유출 비율은 2001년 40.1%에서 2004년에는 30.8%로 떨어졌으나 2005년 31.2%로 재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 포인트 이상 더 높아졌다.

지역별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자

금 역의 유출 비율을 보면 경북이 47.1%로 가장 높았고 대전(37.8%), 울산(37.7%), 충북(37.6%), 전북(37.3%)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은 36.3%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광주는 28.6%를 기록해 1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인천(21.6%), 경기(24.9%) 등 수도권 지역과 제주(28.1%)의 역의 유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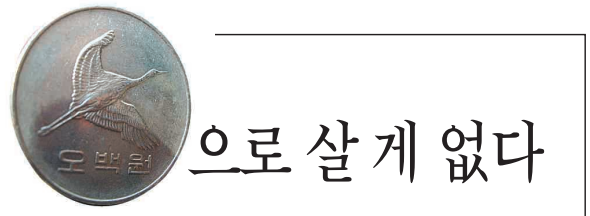


대한상회의는 이들 금융기관의 자금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내실위주 경영을 펼치면서 신용리스크가 큰 영세 지방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차단됐고 지방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서울지역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회의는 그러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형화·전문화 유도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도 지역특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과자·음료수 가격 계속 올라

아이들에게 '과자나 사먹으라'면서 동전 몇 푼 쥐어 줬다가는 면박을 당할 정도로 과자, 음료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과·음료업체가 고급화나 웰빙 등을 내세우며 고가제품을 내놓거나 원가인상 등을 반영해 값을 올리면서 맛백원으로는 과자나 음료수를 사기 어려워졌다.

편의점 GS25에서 많이 팔리는 과자 30개를 뽑아보니 500원 이하는 라면스낵과 치토스 바비큐맛·태양의 맛 선·간초 등 6개 뿐이었다.

인기 1위인 새우깡도 700원이고 2~4위인 자갈치 스낵·오징어젓·꽃게장이 각각 600원씩이며 1천원이 넘는 제품이 12개(40%)에 달했다.

'코 뽀은 뽀'으로 사던 과자·초콜릿·점잖이 비싸진 것은 업체들이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2005년 초에는 웨미리마트 인기과자 23개 가운데 500원 이하인 제품이 8개였다.

올해만 해도 연초에 오리온이 대표 과자 초코파이 한 상자 가격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6%)이나 올렸고 뒤이어 3월에는 롯데제과도 초코파이 값을 30% 높였다.

농심도 비슷한 시기 새우깡 가격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등 20가지 제품가격을 15~20% 인상했다.

지난 3월 중순 롯데제과는 롯데샌드 가격이 700원으로 두고 용량만 115g에서 80g으로 줄였고 롯데제과도 롯데브라우니 값을 1천원으로 유지한채 용량을 108g에서 81g으로 축소시켰다.

/연합뉴스

공공사업 44% 타당성 '미흡' 예비조사로 7년간 73조원 사업 보류

대형 공공사업을 사전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작년 까지 조사가 이뤄진 전체 사업건수의 44%가 타당성이 낮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국제 세미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가 144조9천억원으로 추정되는 200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44.5%에 해당하는 129건의 사업(총사업비 추정액 72조9천억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지자체와 다른 분야의 사업평가로 파급되는 등 예산편성의 한 과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인점을 제공하고 사업추진 중간단계 및 사후단계에서 평가와 연계도를 높여 통합적 공공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운용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재해 피해조사도 자동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국제방재산업전에서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에게 무인 헬기를 이용한 재해 피해조사 자동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전은 25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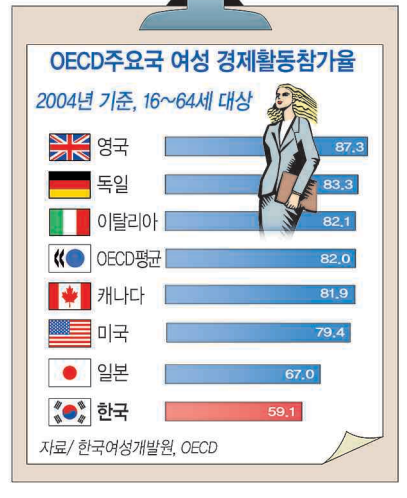
/연합뉴스

대졸여성 경제활동 OECD국중 최하위

우리나라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녀간 직군·직무분리, 결혼·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여성의 상위직 이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9.1%에 그쳤지만 2만달러 때는 80.1%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56.7%에서 70.7%로, 미국은 53.7%에서 63.0%로, 캐나다는 52.5%에서 62.3%로 상승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54.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무려 20%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OECD 평균인 82.0%에 크게 미달하며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사채이자 年 30%로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개인간 돈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자제한법은 제도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권 대출이자율 변동 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확정됨에 따라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할인급,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준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1년 지난 '휴면카드' 자동 해지

새 카드 발급편 연회비 부과...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9월 말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는 반면 카드를 새로 만든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야 한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과당경쟁과 대출 실희현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윤중현 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실적

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 탈퇴시키고 신규 카드회원에게는 가입 첫해에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다만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탈퇴조치를 알려야 하며 탈퇴하더라도 적립 포인트는 소멸시효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위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고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휴면카드는 2천999만장

으로, 전체 신용카드 9천115만장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면카드 회원 수는 2천77만명에 이른다.

다음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부가 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행사 때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 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실태에 대한 점검주기를 현행 10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하고 용도·업종별 등 특정부문의 대출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냉매·실외기 필요없는 차세대 에어컨 연세대연구팀, 세계 최초 제품화 성공

냉매와 실외기가 없으면서도 기존 에어컨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차세대 에어컨이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연세대가 22일 발표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원주캠퍼스 박영우(56·의학물리학)·남균(64·고체물리학) 교수와 ㈜세실실업 공동연구팀은 4년 간의 연구를 통해 열전모듈(Thermo-Module)과 자체 개발한 그린키트(Green Kit)를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냉각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세대는 "이번에 개발된 에어컨이 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외기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냉매를 사용한 에어컨보다 초기 냉각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며 "세계 에어컨 업계의 숙원이던 냉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에어컨 기술의 신기원"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대체 냉매를 개발하려는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품이 대기업에 의해 상용화하면 연 3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에어컨 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이 에어컨이 여름에 냉방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히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부품인 열전모듈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연세대는 또 이 시스템이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폐기할 때는 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



22일 연세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학물리학과 박영우 교수(왼쪽에서 첫번째), 고체물리학과 남균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애플·포도맛 '환타 월드' 출시

한국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주)는 '자메이카 그린 애플맛'과 '브라질 포도맛' 등 2가지 '환타 월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환타는 스테디셀러인 환타 오렌지맛과 파인에플맛, 비타민 C를 함유한 비타 레몬맛 등과 함께 기존 제품의 디자인과 명칭을 새로 바꾼 환타 브라질 포도맛과 새로 추가된 자메이카 그린애플맛 등 모두 5가지로 제품 종류가 늘었다.

한국 코카콜라는 '환타와 함께 세계적으로 놀자'란 슬로건으로 대학생 무료 샘플링 등 이번 출시제품과 함께 성수기 마케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환타 월드 리포터를 선발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타 '자메이카 그린 애플맛'과 '브라질 포도맛' 355ml 캔제품의 가격은 900원(편의점 기준)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